



재미 지리정보 및 환경과학 협회 소식지

(Newsletter of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for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인사말



김창주 회장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Cincinnati

KAGES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찬 여름 방학
보내고 새로운 학기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가

Quarter에서 Semester제로 바뀌어서 짧은
여름이었습니다. 지리가 변하듯 세상에 불변이 없으며,
더욱더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행정을 보면서 새삼
실감합니다.

저희 KAGES에서 올해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로 학회 소식지를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학회 내외의 전반적인 소식과 회원 여러분들의 동정을
자주 전하자는 취지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AAG 학회 초록 마감일(10월 24일)이 곧 다가오므로,
저희 KAGES도 내년 5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3 로스엔젤레스 AAG 학회는 약

제 7 호 (2012) 안내

인사말	(표지)
회원 포럼	(표지)
장희준 회원: 연구 제안자를 위한 조언	
이주미 회원: Mediterraneanism and EU-Mediterranean relations	
기관 소개	(4 면)
심선희 회원: 북알라배마대학교 지리학과	
보고	(4 면)
최운섭 회원: 쾰른 IGC 2012	
개인 소식 및 공지사항	(5 면)

발행인: 김창주, 편집인: 최운섭

10,000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2002년 로스엔젤레스 학회의 경험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보면, 재미 한국연구자들과 재한 연구자들의 발표도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후원해주셨던 회원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뜻하시는 연구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모든 회원들을 2013년 4월 9-13일 나성에서 꼭 뵙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비를 더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

장희준 (포틀랜드주립대 지리학과 교수)

최근 미국 각 대학에서 연구비 수혜 현황이 테뉴어 심사의 한 중요한 잣대로 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인의 경험 (수혜자 및 심사자 측면)에 의거하여 성공적으로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 연구비를 주관하는 기관의 방향 및 Call for Proposal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통상 미국 과학재단 (NSF) 은 이론적인 기여를 우선시하지만, 다른 기관의 (예를 들면 NOAA, 주, 시정부기관 등) 경우 응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포절이라도 기관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거절된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각 주관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심분활용할...(2면에 계속)

Short Reflections on "Mediterraneanism" and changing EU-Mediterranean relations

Joomi Le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hen I was in the field, I was often asked, by locals and colleagues alike, "why do you study Morocco?" and "why do you work on Salé?". Perhaps this is partly due to the obscurity of Salé itself. Indeed, Salé is not even marked in many standard English travel guidebooks, and I had a hard time finding a decent map of the city in the initial stages of my fieldwork. Having been asked this many times, I have tried to formulate various reasonable answers in order to satisfy whoever poses the question. I am not sure I know the right answer (if there is one). The most personal answer I can give, however, is my predilection for what is sometimes called le Sentiment Méditerranéen. I was initially drawn to the Mediterranean due to the powerful writing of authors such as... (2면에 계속)

(표지에서 계속)... 것을 권고한다. 이들은 속한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포절이 보다 많이 접수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프로포절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면 기꺼이 답해준다. 즉 이들과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제안하는 연구의 새로운 측면이 어떤 점인지를 부각해야 한다. 현재처럼 비슷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무엇이 참신한지를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전 연구비 수혜자들이 현재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의 연구 제안서가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연장성 상에 있다면 이들의 논문을 반드시 인용하여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부각하기 바란다. 이들이 당신의 프로포절을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연구제안자가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서 일을 맡긴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아마도 가장 손쉬운 척도는 이들이 과거에 수행한 연구의 결과, 즉 논문이나 웹사이트를 검토해보는 것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국 과학재단 연구제안서 응모시 미리 1/3 정도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음 기회로 제출하라는 권고도 들린다. 이렇기 때문에 연구제안서에서 초기 결과(preliminary results)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초기 결과가 이미 논문화되었다면 더욱 연구제안자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제안서에서 그림과 표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개념적인 그림이나 표는 사과의 정리 수준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적인 그림 안에 가설을 포함하고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쓸 것인지, 그리고 이

연구방법이 어느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연구제안서는 이미 반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규모 프로포절의 심사자나 패널 멤버들은 단기간에 많은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이들의 주목을 끌어 다른 프로포절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가능하면 마감 4주 전에 프로포절 작성을 끝내어, 교내나 외부의 제 3자에게 평가를 받도록 권고한다. 이들은 그동안 논문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주내에 심사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프로포절의 부족한 점을 건설적으로 단기간에 지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두뇌는 같은 문서를 단기간 반복해 볼 경우 그리 효율적이 아닌 것 같다. 만약 2주간 휴식을 둔다면, 당신도 제 3자 입장에서 연구제안서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2주 기간동안 연구제안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번 거절당하였다고 포기하지 말라. 미국 과학재단 프로포절의 평균 수혜율이 15-20%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 번에 프로포절이 채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심사자와 패널이 지적했거나 제안한 사항을 가급적 모두 수용하여 연구제안서를 재작성하기 바란다. 문제는 미국 과학재단의 경우 재투고한 제안서가 반드시 똑같은 심사자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수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3번 이상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떠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속담은 성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결국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연구제안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모쪼록 상기 언급한 몇가지 제안들이 이제 테뉴어 심사과정을 걷고 있는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표지에서 계속)... A. Camus and J. Grenier, as well as by a marvelous collection of pocket books published by Éditions Gallimard which focus on ancient civilizations in the Mediterranean. Somehow I finally ended up working in Salé, Morocco, deriving from my own penchant for the Mediterranean culture, history, and society.

During dissertation fieldwork I collaborated with a local political organization in Salé (l'Association "Sala Al Moustakbal"), rooted in the city's middle-class

intellectuals who are critical to the country's monarchy-centered politics to a great extent. As this organization was selected as one of the official partners of the EU-funded Montada project, due to my collaboration I also subsequently get engaged with the Montada project and conducted some interviews on behalf of the organization. The Montada project (namely, Forum de promotion de l'architecture traditionnelle au Maghreb) is a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rogram which... (3면에 계속)

(2면에서 계속) ...forms part of the "Euromed Heritage 4" program (2008-2012; www.euromedheritage.net). This was conducted in three North African countries (Algeria, Tunisia, and Morocco), which are the EU's closest Arab neighbors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 and all in close geographical proximity. In the hierarchy of the EU's foreign policy, the project was first operated under the broad framework of the EMP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arcelona Process"), which is now known as the ENP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Generally, the Euromed Heritage program as a cultural policy is of important economic and political relevance, the policy consequences of which cannot be extricated from the EU's ongoing security efforts. My engagement with the Montada project gave me a valuable chance to observe the Euromed program in a microcosm perspective, in other words to see how the EU's cultural foreign policy towards its Arab Mediterranean neighbors actually works "on the ground". I am interested in how well these initiatives actually work in the social, cultural and human domains, and whether they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nurturing of local civil societies in the EU's borderlands, many of which have been striving for democratization and independence from authoritarian states.

After returning to the US in Summer 2011, I was in the middle of dissertation writing when I heard the news that the EU Commission in Washington DC would allocate funds for short-term research on the EU's policy in partnership with the European studies centers in various American universities. This sounded like a good fit for me as I was mulling over how to extend my research interests into a broader regional context. So I rushed to write a proposal based on my fieldwork experience. During Summer 2012, thereby, I found myself again in the middle of the dazzling sunshine and dry air of the Mediterranean for a spell, alternately sipping not-so-good café crème and very-good French-style espresso in a Moroccan café as unknown Arab music was heard in the background. The generous grant support gave me the valuable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policy officers from Brussels about the specific content and achievements of the entire set of Euromed Heritage programs, especially those which are operated in North Africa (note: the EU's nine Arab Mediterranean partner countries currently include Algeria,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orocco, Palestinian Authority, Syria and Tunisia). Most intriguing perhaps was contact I had with some regional scholars whom I met in Paris, Marseille and Corsica, and who clearly pointed out to me the political intention behind this Euro-

Mediterranean Partnership, which recognizes and emphasizes the Mediterranean's central role in the making of the Europe-led – somewhat elitist and colonial-nostalgic – cosmopolitanism. The political discourse commonly referred to as "Mediterranean cosmopolitanism" or "Mediterraneanism" has been widely cited as a key concep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unity, bridging bourgeois European neighborhoods with poorer Middle Eastern ones. This made me reflect on in what ways the discourse is interwoven with the EU's enlargement of its borderlands across North Africa and the Middle East during the emergence of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the cultural and historical unity of the Mediterranean world, in both American and European academia. A good number of American, British, and European universities have recently launched Mediterranean studies initiatives, set up interdisciplinary centers, and organized themed series of seminars on this topic. While scholars are still strenuously debating if such a thing as "Mediterraneanism" historically existed or could exist, and how to define this term, the term already seems to be a buzzword and a common paradigm of growing importance both in academia and politics. The current trend of trans-nationalism in the Mediterranean world has received much renewed attention, and many see it as a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I am skeptical of the benefits. My recent reading of an article titled "Rethinking Euro-Med policies in the light of the Arab Spring" (March 2011) left me doubtful that the EU's upgraded policy on the EU-Mediterranean partnership which claims to "embrace"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s the EU's borderlands can ever successfully avoid "accusations of political imperialism", although the authors made the reverse argument. In any case, in the coming years, it won't be an easy task for the EU to implant or transform these academic narratives, political discourses and policies into the reality of an Arab world where European colonial history and the modern politics of Israel/Palestine still weigh heavily in the minds of Arab people.

◆2013년 KAGES 총회◆

2013년 KAGES 총회가 로스앤젤레스 AAG 대회 중 4월 11일 목요일 오후 5-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장소 추후 공지). 총회 이후에는 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관소개: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North Alabama

심선희 (지리학과 조교수, University of North Alabama)

북알라바마대학교 지리학 교과목 수업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과학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유지되다가, 1973년에 정식 학과로 인정되어, 유서깊은 건물인 Wesleyan Hall에 자리잡았다. BA/BS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가, 1983년에 컴퓨터와 통계학의 발전과 더불어 Professional Geography 과정이 개설되었다. Geospatial technology 응용을 강조한 학부과정의 성공으로 2010년에 학부전공자가 170여 명에 이르렀고, Geospatial Science 석사과정도 같은 해에 개설되었다.

UNA 지리학과와 특징을 꼽자면, 전통적으로 지리정보공학을 강조하여, 응용분야인 도시계획, nature-society interaction, biogeography, geomorphology, environmental hazards 관련 분야 수업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교육 또한 강한 전통으로 남아있는데, The Alabama Geographic Alliance (미국내 초기 Alliance 중 하나)를 유치하고 있고, 이 활동으로 National Geographic Society로부터 매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중국, 남미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해외 수업 및 답사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GIS와 지리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UNA 지리학과는 알라바마주에서는 최고의 지리학과 학부과정을 자랑하고 있다. 매년 UNA홈커밍데이가 (9월 마지막주) 되면 지리학과에서는 Alumni Conference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 학술대회는 GIS와 관련된 프로젝트 발표, 재학생들의 답사발표, Juan José Valdés (National Geographic Maps' Director of Editorial and Research)의 기조연설, 취업 지원 활동, 그리고 각종 GIS 관련 워크샵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 특히 LiDAR 워크샵과 ArcGIS Online 워크샵이 유익하였다고 한다.

현재 UNA 지리학과는 새로이 학과장이 된 Dr. Koti가 두 명의 신입교수들과 함께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170여명의 학부학생들과 Geospatial Science 석사과정 학생들을 아우르는 가운데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특히 협력적 연구를 좀더 강조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다. 학과의 외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한 변화로 남부의 지리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문의: ssim@una.edu, <http://www.una.edu/geography>)

보고: The 32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Cologne, Germany

최운섭 (지리학과 조교수, 밀워키-위스콘신대학교)

I attended the 32nd IGC in Cologne (or Köln), Germany during the last week of August 2012. It was my first time presenting a paper at IGC and quite a good experience.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IGC, I would like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first. IGC is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http://www.igu-online.org/>). The IGU can be seen as a federation of national geographical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ts General Assembly consists of delegates appointed by the member country's national geographical organizations, and meets every four years during an IGC. The IGU has 37 Commissions of a wide range of specialty in Geography. They are main players of scientific activity of the IGU, and organize scientific meetings before, after, during, or between IGC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GU is Dr. Ron Abler from the United States. The next IGC with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in Beijing in 2016, and the next one without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in

Kyoto in August 2013.

During the IGC in Köln, I mostly attended sessions organized by the Commissions of Climatology and Water Sustainability. All the climatology sessions I attended was about climate and weather extremes, and I presented in one of them. My paper was about the patterns of extreme high precipitation in Wisconsin during 1950-2006. I analyzed a high-resolution daily gridded data set with a range of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techniques. I found that the pattern is very heterogeneous across the state, and more extreme indicators seem to have increased than less extreme indicators. The water sustainability sessions I attended were largely about climate change impacts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 because the congress was held in Europe, many presentations were about European sites. One of the four key themes of the congress was 'Global Change & Globalisation' and there were a few... (5면에 계속)

(4면에서 계속)... interesting (to me) sessions under the theme. They were about analyzing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via method combinations, and I found a couple of presentations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they introduced new integrated approaches to asses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Personally there were a lot more sessions interesting to me than the last AAG meeting in New York. Maybe because in IGC, sessions are mostly organized by commissions and abstracts are submitted to pre-organized sessions. The two commissions that fit my interest organized an enough number of interesting sessions. Of course some presentations were disappointing in content and PowerPoint slides were messily organized (particularly those by Russian presenters). Anyway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see presentations about non-American issues and build a network outside of the US.



개인소식

김대현 (University of Kentucky)

- AAG Nystrom Award 수상자로 선정
- 출판: (1) Kim, D. (2012) Biogeomorphic feedbacks drive dynamics of vegetation–landform complex in a coastal riparian system. *Ecosphere* 3: Article #74.; (2) Kim, D., Cairns, D.M., Bartholdy, J. & Morgan, C.L.S. (2012) Scale-dependent correspondence of floristic and edaphic gradients across salt marsh creek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2: 276-294.

김민호 (상명대학교)

2012년 2학기부터 상명대학교에 임용됨

김창주 (University of Cincinnati)

- PI, Detecting and Characterizing Landslides Using LiDAR Data, Mini Grant for Research, Center for Geospatial Information & Environmental Sensor Networks (GIESN)
- Co-PI, Current Status and Implementation in 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A case study of

Washington and Rhode Island, Korea Maritime Institute

- 부교수 승진 및 종신임용

이은결 (West Virginia University)

웨스트버지니아대학 조교수에 임용됨

장희준 (Portland State University)

- Editorial board member appointed
 - *Climate*, 2012–2014
 - *Journal of Urban Research*, 2012-
- Book chapter: Chang, H., and House-Peters, L. (2012) Climate Change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Meeting New Security Challenges* edited by Scott Snyder. Lynne Rienner Publishers: Boulder, CA. pp.145-172.
- Invited panel presentations: *Climate change impacts on urban travel disruption*. Oregon Transportation Summit, Portland, OR, September 10, 2012; *Climate change and shifts in ecosystem service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oul, Korea, 1 August 2012
- 2012 Supervisor of the Year Nominee for outstanding serv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최운섭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출판: Choi, W. et al., 2012, "A spatiotemporal analysis of groundwater level changes in relation to urban growth and groundwater recharge potential for Waukesha County, Wisconsin," *Geographical Analysis*, vol. 44, no. 3, pp. 219-234
- 부산대학교에서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urban development on water resources" 라는 주제로 특강 (2012년 6월)
- 밀워키 지리학과 학부생 한 명과 함께 2012년 5-6월 사이 서울 불광천, 화랑천, 당현천 등지에서 수질조사 활동

공지사항

- 재미지환협 Facebook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Like'를 눌러주세요: <http://www.facebook.com/pages/Kages/439739979382089>
- 올해에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수시로 재미지환협 홈페이지(www.kages.org)나 Facebook 페이지를 찾아주세요.